

[퀀트] 신희철 2122-9198 shc4235@hi-ib.com

실적발표 이후에도 이익모멘텀이 견조한 기업은?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해당 종목들의 수익률 평균은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익이 희소한 환경에서 이익 모멘텀이 견조한 개별주식에서 알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023년 11월 14일 분기보고서 마감일을 기점으로 3분기 실적시즌이 마무리되었다. 3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은 약 54.3조원으로 예상치 48조원을 약 13% 상회했다. 섹터 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자본재(19.3%), 자동차(16.6%), 필수소비재(11.7%), 에너지(9.0%) 등이 상위에 위치했으며, 디스플레이(-2.0%), 기계(-1.4%), 소매유통(-1.3%), 조선(-1.3%), 반도체(-1.1%) 등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 어닝서프라이즈 종목 수가 적어지는 구간 속 실적이 견조한 종목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

시장 내에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수 비율은 2021년 3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 보이고 있다. 시장 감익 구간에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이 희소해지면서 실적이 견조한 종목들에 대한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다.

■ 강한 시장변동성 속에서도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개별종목은 지수 대비 아웃퍼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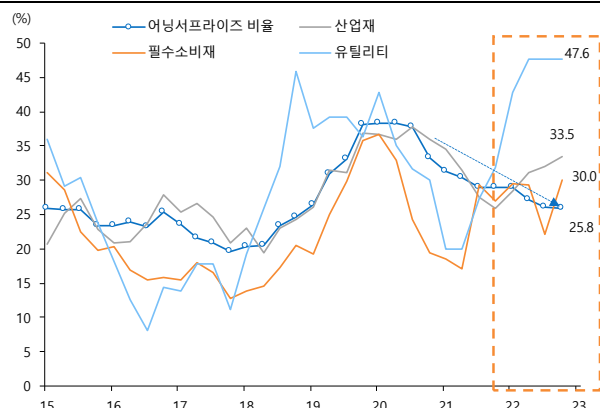
11월 섹터지수의 월간 수익률을 봤을 때,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를 주도한 자본재, 자동차, 필수소비재의 상승률은 저조했다. 시가총액 비중으로 계산된 섹터지수의 상승률은 실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은 시장대비 아웃퍼폼했으며, 상승 폭 역시 과거 대비 상회했다

■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 가격부담이 적고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종목에 집중하자

공매도 금지 이후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정책 리스크 및 가격레벨 부담 속 '2023년 국내증시의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 2차전지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주도 섹터 부재 속 그간 소외되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그 중에서도, 이익전망치가 하락하는 환경에서 실적이 견조하고 향후 전망치 역시 견조한 개별 종목 중심으로의 선별적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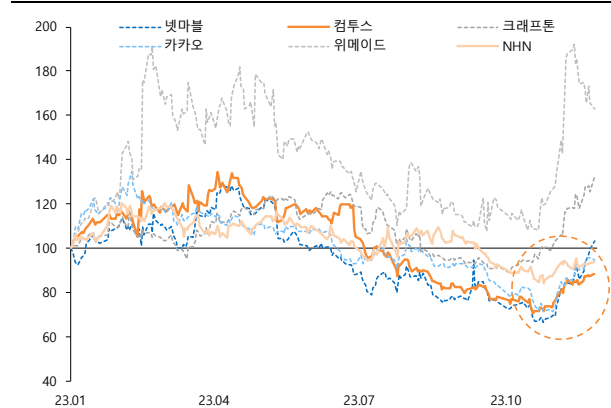
■ 주목할만한 종목: NHN, 컴투스, 디어유, CJ ENM, 롯데정보통신

그림1.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 섹터별로는 산업재,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반등 나타남



자료: Quant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NHN, 컴투스의 경우 이익모멘텀이 견조함과 동시에 금리 하락의 수혜주. 가격 부담 역시 적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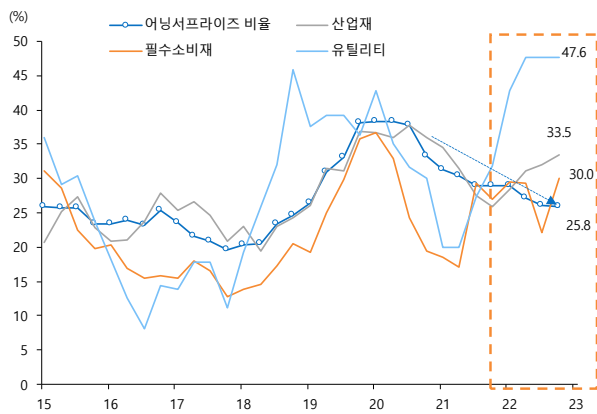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1. 어닝서프라이즈 종목 수가 적어지는 구간 속 실적이 견조한 종목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

3분기 코스피, 코스닥 전체 종목 중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2개 이상 존재하는 종목 353개 중 어닝서프라이즈를 10% 이상 기록한 종목의 개수는 86종목으로, 비중은 24.4%이다. -10% 이상의 어닝쇼크를 낸 종목 비중은 44.6%, 컨센서스 대비 -10%~10%의 실적을 발표한 종목 비중은 30.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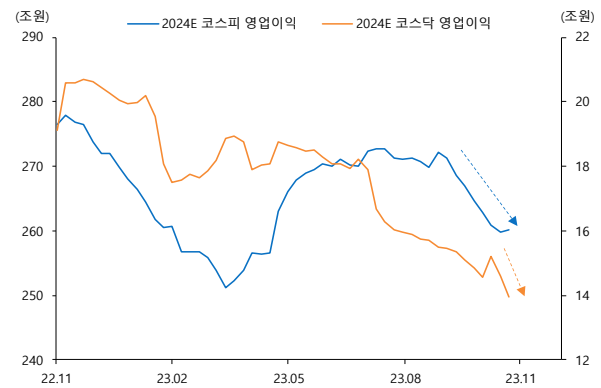
WICS 섹터 기준 섹터별로는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산업재 2분기 대비 어닝서프라이즈 종목 수 비중이 상승세 보이고 있고, 나머지 섹터는 이전 대비 감소했다.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2021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3분기 시장 전체 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은 소수의 종목의 아웃퍼폼이 시장 전체 이익을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 감익이 진행되면서, 이익이 희소한 상황 속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는 개별 기업들의 펀더멘탈 매력에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림3.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상승세 보이는 섹터는 산업재,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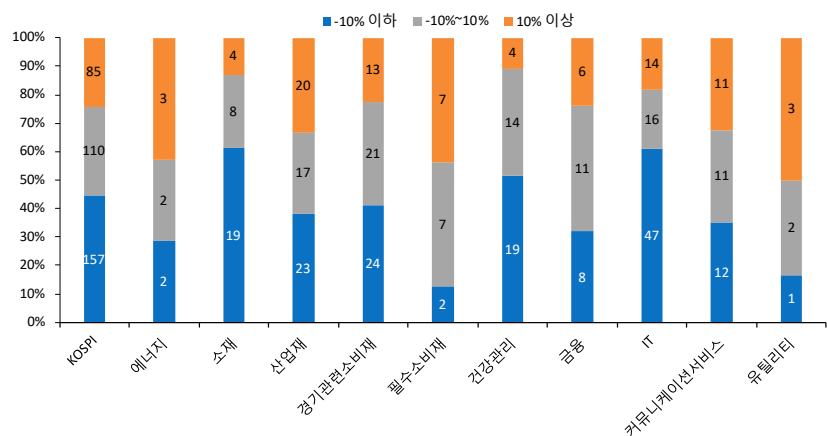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 1. 어닝서프라이즈 종목 수 비중은 4 개분기 Rolling 하여 계산

그림4. 2024 년 코스피, 코스닥 영업이익 전망치는 3 분기 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



자료: Quanti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2023 년 3 분기 WICS 섹터별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수 및 비중: 에너지,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수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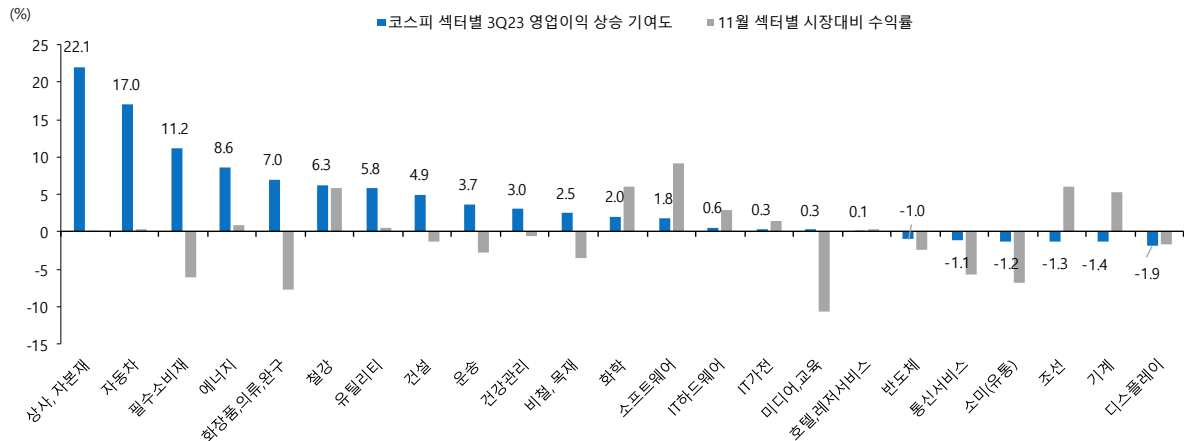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 강한 시장변동성 속에서도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개별종목은 지수 대비 아웃퍼폼

11월 섹터지수의 월간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를 주도한 자본재, 자동차, 필수소비재의 상승률은 저조했으나 금리 하락의 수혜주 및 공급쏠림의 중심에 있었던 게임/소프트웨어, 2차전지 관련주(철강+ 5.9%, 화학+6.1%)는 상승률 상위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비중으로 계산된 섹터지수의 상승률로 봤을 때 주가 움직임과 실적과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은 시장대비 아웃퍼폼했으며, 상승 폭 역시 과거 대비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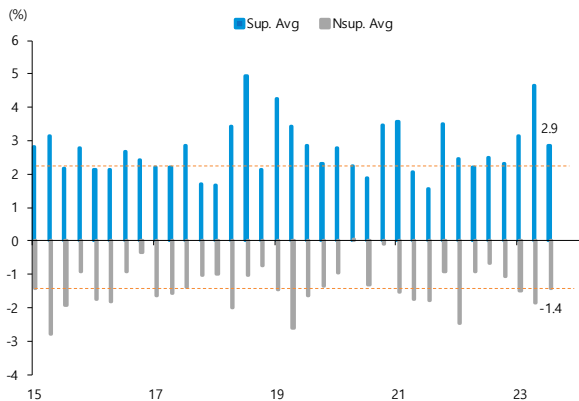
실제로 10% 이상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 중,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일을 기준으로 ± 1 영업일 간 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을 계산해본 결과 평균 상승률이 2.9% 나타났다. 이는 과거 평균 2.0%를 상회하며 실적 결과에 따라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10% 이상 어닝쇼크를 기록한 종목들의 평균 상승률은 -1.4%로 과거 평균 -1.2%를 하회했다. 특히 어닝서프라이즈 종목 비율이 감소세에 있는 소재, 경기소비재 섹터의 경우 서프라이즈-쇼크 주가 상승률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 시가총액 비중으로 계산된 섹터지수 수익률이 실적 결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반면, 기업 규모와 무관한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이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개별종목장세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6. 3Q23 코스피 영업이익 섹터별 상승 기여도 및 섹터지수 상승률: 섹터 지수 상승률과 섹터 별 실적 결과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



자료: Quant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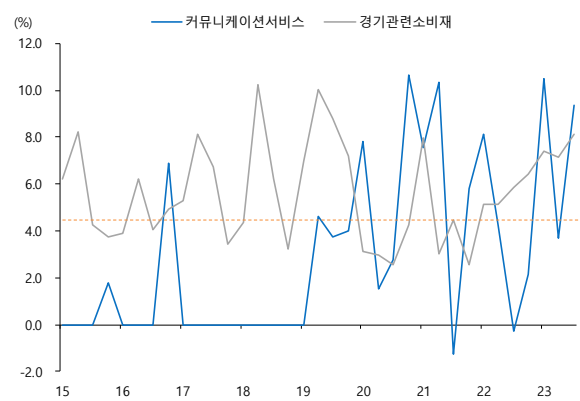
그림7. 올해 어닝서프라이즈 종목 수익률은 과거 평균을 소폭 상회. 어닝쇼크 종목 수익률 역시 과거 평균을 소폭 하회하면서 실적에 따른 장세 보였음



자료: Quanti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주 1. 주황색 점선은 과거 어닝서프라이즈, 어닝쇼크 종목 수익률 평균
- 주 2. 수익률 평균은 개별종목 잠정실적 발표일 ± 1 시장대비수익률의 평균값

그림8.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이 감소세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서비스, 경기소비재 섹터 내 어닝서프라이즈-어닝쇼크 주가 상승률 차이는 더 뚜렷하게 나타남



자료: Quanti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주 1. 주황색 점선은 이번 분기 전체 종목의 어닝서프라이즈-어닝쇼크 종목 수익률 차이

3. 주도주 부재 속 실적발표 이후 이익성장 모멘텀이 지속되는 종목에 주목

이익모멘텀이 견조한 종목: NHN, 디어유, 컴투스, CJ ENM, 롯데정보통신

23년 시장을 주도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실적 부진과 '24년 미국 대선을 앞둔 정책리스크 속 추가 상승이 제한되고, 반도체주는 향후 이익 전망치 하락과 높은 가격 레벨 속 추가 상승이 부담되는 상황이다. 코스피 지수 역시 24년 이익 기준 P/B 배수가 10.5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한동안은 지수의 추가 상승이 제한되고,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적에 민감하고 이익이 희소한 환경임을 고려했을 때, 그간 소외되었던 종목 중 실적이 견조하고 향후 이익 전망치가 상승하는 개별 종목에 서 알파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2개 이상 있고, 시가총액이 3,000억을 넘는 코스피, 코스닥 352종목 중 3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 이익 추정치가 증가한 종목은 총 107종목이 있었다. 해당 종목 중 NHN, 컴투스, 디어유의 경우 2023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 성장을 기록했고, 4분기 역시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아 긍정적이다. 특히 해당 종목들의 경우 YTD기준 수익률이 저조하면서 가격 부담 역시 낮은 편이다. 같은 조건으로 필터링된 제이엔티씨, 클래시스, 토비스, 넥센타이어는 올해 각각 145%, 128%, 80%, 39%의 상승률을 보였다. CJENM, 컴투스, SK하이닉스의 경우 적자 폭 감소, 실적 성장률이 (+)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성장 기율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한편 2023년 4분기 실적 전망치 기준 이익상승률의 폭이 둔화됐으나 여전히 (+)상승률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는 종목으로는 HD현대일렉트릭, 롯데정보통신이 있었다.

- 2023년 매 분기 (+) 영업이익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시장대비 수익률 저조한 종목: NHN, 컴투스, 디어유

- 4분기 성장폭이 꺾였으나 (+) 영업이익 성장을 유지: HD현대일렉트릭, 롯데정보통신

- 23년 매 분기 영업이익 성장률 기율기 (+): CJENM, 컴투스, SK하이닉스

표1. 이익모멘텀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종목 리스트

Name	시가총액	YTD 수익률	벤치마크 대비	영업이익 (10억원)				QoQ 성장률 (%)				Valuation	
	(10억원)	(%)	(%p)	1Q23	2Q23	3Q23	4Q23E	1Q23	2Q23	3Q23	4Q23E	12mf P/E	12mf P/B
2023년 매 분기 영업이익 성장률 (+)													
NHN	800	-8.0	-21.3	19.1	20.9	23.4	25.6	91%	9%	12%	9%	47.5	0.4
컴투스	645	-13.6	-35.1	-14.8	-5.3	-1.6	-0.1	24%	64%	70%	94%	20.4	0.5
디어유	869	18.9	-2.6	5.7	6.7	8.4	8.7	33%	18%	25%	4%	38.1	4.1
넥센타이어	814	39.4	26.1	16.2	37.1	69.7	69.8	49%	129%	88%	0%	8.1	0.5
제이엔티씨	857	145.0	123.4	2.2	4.1	17.0	21.0	110%	86%	315%	24%	17.2	1.8
클래시스	2539	128.5	106.9	19.9	23.1	24.7	27.5	3%	16%	7%	11%	26.3	6.5
토비스	303	80.3	58.7	3.0	7.7	9.8	12.3	15%	157%	27%	26%	7.6	1.2
4분기 영업이익 성장률 둔화													
HD현대일렉트릭	3129	111.4	98.1	46.3	58.8	85.4	89.2	-10%	27%	45%	4%	12.5	2.6
롯데정보통신	436	10.4	-2.9	11.9	10.9	16.1	19.0	-24%	-8%	48%	18%	7.0	0.9
2023년 매 분기 영업이익 성장률 기율기 (+)													
CJ ENM	1700	-28.3	-49.9	-50.3	-30.4	7.4	37.0	-862%	40%	124%	400%	18.8	0.5
컴투스	645	-13.6	-35.1	-14.8	-5.3	-1.6	-0.1	24%	64%	70%	94%	20.4	0.5
SK하이닉스	93184	73.8	60.5	-3402.3	-2882.1	-1792.0	-335.3	-79%	15%	38%	81%	6.4	1.5

자료: Quant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 1. 코스피, 코스닥 중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2개 이상 있고 잠정실적 발표 이후 2024E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승한 종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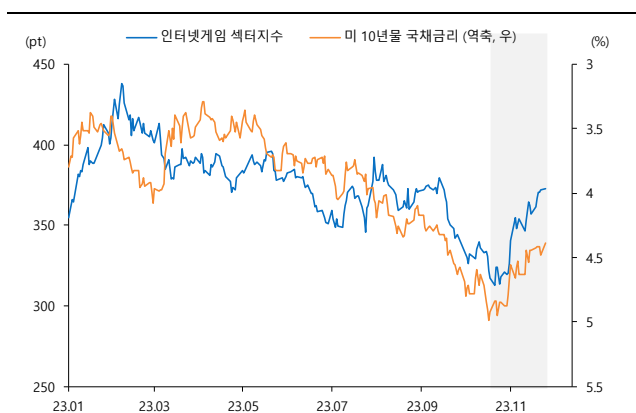
주 2. 주황색 하이라이트된 종목은 YTD 기준 주가 수익률이 벤치마크 대비 작고 가격부담이 낮은 종목

주 3. 벤치마크 대비 상승률: 개별종목 YTD 수익률 - 벤치마크 YTD 수익률로 계산

이익 모멘텀과 더불어 금리 하락의 수혜주: NHN, 컴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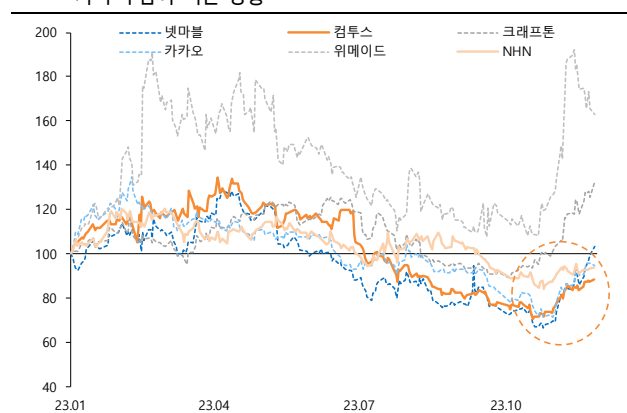
이익성장이 지속되며 향후 실적 전망치가 견조한 종목 중 특히 NHN, 컴투스의 경우 인터넷/게임 섹터 특성상 현재 금리 하락 국면에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호적이다. 고금리 환경 속 하락세 이어오던 인터넷게임 섹터지수의 경우 2023년 10월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고점을 확인하고 하락 반전함과 동시에 반등, 저점 대비 약 19% 상승세를 보였다. 지수 내 크래프톤, 카카오, 위메이드, 넷마블과 같은 대표적 게임/소프트웨어 주가 역시 역시 10월 말부터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 컴투스, NHN 역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나 아직 연초 주가를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금리 하락이 뒷받쳐주는 환경 속에서 컴투스, NHN의 경우 향후 이익모멘텀까지 견조하다는 측면에서 특히 관심을 가질 종목이라고 판단된다

그림9. 미 국채금리의 고점 확인과 동시에 국내 인터넷게임 섹터 지수는 반등을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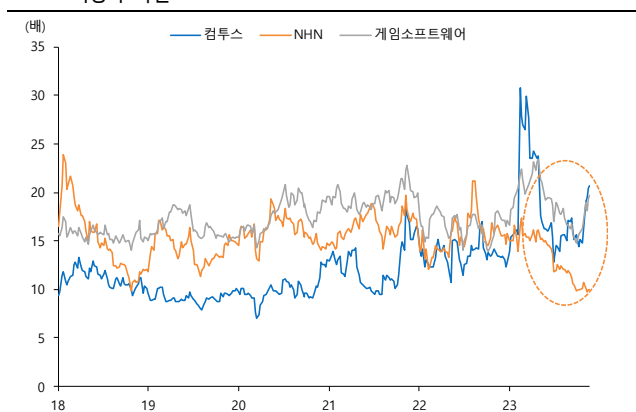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대표적 게임/소프트웨어 종목들 역시 강하게 반등. 단 이익모멘텀이 견조한 NHN, 컴투스의 경우 반등폭이 크지 않아 가격 부담이 적은 상황



자료: Quanti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1. NHN, 컴투스의 경우 밸류에이션 부담 역시 높지 않은 상황. 특히 NHN의 경우 오히려 12개월 선행 P/E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저평가 국면



자료: Quanti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표2. 3Q23 잠정 실적 발표일 이후 24년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율 상위 40 종목

Name	상장된 시장	W26업종명(대)	W26업종명(중)	시가총액 (10억)	주가 수익률			2024E 영업이익				2024E 순이익				Valuation				
					실적발표 후 YTD (%)	벤치마크 대비 (%)	점정지 발표 이후 (%)	Weekly (%)	Monthly (%)	점정지 발표 이후 (%)	Weekly (%)	Monthly (%)	CPD-1	12mf P/E	Max	Min	CPD-1	Max	Min	12mf P/B
검투스	KOSDAQ	소프트웨어	게임소프트웨어	645	12.1	-13.6	-35.2	81.8	44.1	21.2	-12.5	-4.8	-13.5	20.4	31.9	6.4	0.5	2.4	0.4	0.4
위메이드	KOSDAQ	소프트웨어	게임소프트웨어	1744	23.6	60.7	39.0	63.5	4.0	71.8	63.0	3.4	67.2	18.0	128.7	7.7	4.3	19.2	1.0	1.0
한국전력	KOSPI	유틸리티	유틸리티	12063	15.3	-2.7	-15.5	42.9	3.2	40.7	151.0	-3.2	197.7	10.5	85.3	-1225.6	0.3	0.5	0.2	0.2
케이엔티씨	KOSDAQ	IT하드웨어	센드넷	857	12.0	145.0	123.3	38.7	38.7	30.0	78.6	78.6	20.7	17.2	134.4	-1027.1	1.8	1.5	0.7	0.7
SK스퀘어	KOSPI	반도체	반도체	6678	10.9	56.9	44.1	37.1	37.1	4.2	27.3	27.3	3.8	3.2	151.9	-67.4	0.4	1.0	0.3	0.3
아모레퍼시픽	KOSPI	화장품의류인구	화장품	7604	-0.1	0.2	-12.6	27.9	0.9	28.8	13.5	0.7	18.8	4.2	57.9	20.2	1.7	5.0	1.3	1.3
한국타이어엔지니어링	KOSPI	자동차	자동차부품	5550	9.2	47.9	35.1	26.1	0.0	21.5	21.4	0.0	17.1	4.2	11.3	4.1	0.5	1.0	0.3	0.3
아모레G	KOSPI	화장품의류인구	화장품	2358	-5.0	-17.4	-30.2	25.2	-1.3	29.5	29.5	-0.8	32.3	-204.3	45.7	12.4	0.7	3.8	0.6	0.6
올리브	KOSDAQ	화장품의류인구	화장품	521	6.1	75.9	54.3	18.4	-0.5	18.4	18.8	-1.2	18.8	6.9	33.8	11.1	2.1	3.7	1.1	1.1
CJ ENM	KOSDAQ	미디어교육	미디어	1700	31.8	-28.3	-50.0	18.3	0.4	0.2	36.1	-7.3	-25.4	18.8	1888.7	-44.8	0.5	4.9	0.3	0.3
대한유화	KOSPI	화학	화학	1058	5.0	-4.9	-17.6	17.5	-12.0	17.5	24.0	-11.1	24.0	9.1	67.4	-213.0	0.5	1.1	0.2	0.2
브이티	KOSDAQ	화장품의류인구	화장품	642	-11.1	241.4	219.7	16.6	2.6	17.0	3.7	3.7	4.5	5.5	21.1	9.6	4.4	6.0	2.7	2.7
넥센타이어	KOSPI	자동차	자동차부품	814	5.3	39.4	26.7	15.1	0.0	15.1	14.6	0.0	14.6	8.1	26.0	3.3	0.5	0.9	0.3	0.3
코스메카코리아	KOSDAQ	화장품의류인구	화장품	407	6.2	261.6	239.9	14.8	-0.7	14.8	19.6	1.3	19.6	9.6	31.9	7.2	2.1	3.5	0.5	0.5
효성중공업	KOSPI	기계	전기장비	1834	14.3	174.1	161.3	14.4	0.0	14.4	17.4	0.0	17.4	3.4	24.2	-62.5	1.3	1.5	0.1	0.1
유켄	KOSDAQ	건강관리	생명과학	1901	9.5	15.2	-6.5	13.2	0.0	17.2	13.0	0.0	19.9	13.1	46.3	16.4	1.8	3.7	1.3	1.3
HD현대일렉트릭	KOSPI	기계	전기장비	3129	11.7	111.4	98.6	13.0	2.3	13.0	11.7	3.0	11.7	12.5	215.1	-233.1	2.6	2.6	0.3	0.3
한국저신신학	KOSPI	은행	기타금융	418	3.2	13.3	0.5	12.7	12.7	12.7	12.0	12.0	12.0	3.6	5.5	1.7	0.4	1.2	0.2	0.2
롯데정보통신	KOSPI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436	-2.5	10.4	-2.4	12.6	0.0	12.6	11.4	0.0	11.4	7.0	20.2	5.9	0.9	2.4	0.7	0.7
텔레콤스	KOSDAQ	반도체	반도체	423	40.0	179.4	157.7	12.1	0.0	8.4	13.1	0.0	-2.5	5.6	28.2	4.4	1.8	2.5	0.5	0.5
셀트리온	KOSPI	건강관리	제약	24596	10.1	3.8	-9.0	11.9	8.3	12.0	11.6	7.9	11.5	14.3	79.7	28.1	4.3	14.8	3.6	3.6
하이트진로	KOSPI	필수소비재	식품음료	1603	7.4	-7.1	-19.8	11.6	1.9	11.6	13.4	3.0	13.4	101.4	40.1	11.3	1.4	2.8	0.9	0.9
더블유게임즈	KOSPI	소프트웨어	게임소프트웨어	844	4.3	1.2	-11.6	9.7	2.0	9.7	9.3	0.1	9.3	5.5	13.3	5.1	0.8	2.2	0.6	0.6
파라다이스	KOSDAQ	호텔레저서비스	호텔레저서비스	1289	-3.2	-22.0	-43.7	9.0	0.1	9.0	24.1	0.0	24.1	17.7	471.5	-1271.7	0.8	2.1	0.7	0.7
빙그레	KOSPI	필수소비재	식품음료	570	2.0	44.9	32.1	8.7	8.7	11.0	12.7	12.7	15.2	15.1	19.5	7.4	0.7	1.2	0.6	0.6
파마리서치	KOSDAQ	건강관리	건강관리장비/서비스	1165	-5.7	61.6	39.9	8.3	8.3	12.3	9.1	9.1	14.1	11.7	24.9	9.5	2.2	3.3	1.3	1.3
상양식품	KOSPI	필수소비재	식품음료	1631	12.5	76.9	64.1	8.0	8.0	15.7	7.3	7.3	12.0	23.5	15.5	7.9	2.4	2.9	1.3	1.3
코스모신소재	KOSPI	화학	화학	4874	-1.2	201.8	189.0	7.9	7.9	7.9	12.0	12.0	12.0	6.6	161.0	11.8	13.7	22.7	1.1	1.1
한화오션	KOSPI	조선	조선	4912	6.9	58.9	46.1	7.8	0.6	7.8	13.3	0.5	13.3	9.0	617.1	-336.2	1.6	4.8	0.4	0.4
대한항공	KOSPI	운송	운송	8248	9.3	-1.1	-13.9	7.7	7.7	8.6	4.1	4.1	2.8	6.3	2937.8	-1599.1	0.8	2.3	0.6	0.6
동원F&B	KOSPI	필수소비재	식품음료	602	2.5	1.1	-11.7	7.2	0.0	7.2	7.6	0.0	7.6	10.7	18.7	4.8	0.6	1.8	0.5	0.5
롯데백화점	KOSPI	필수소비재	식품음료	1247	10.5	10.4	-2.4	7.2	0.2	7.2	10.1	0.7	10.1	15.0	16.0	6.9	0.5	1.7	0.4	0.4
엔씨넥스	KOSPI	IT하드웨어	센드넷	522	4.8	8.9	-3.9	7.1	-3.0	7.1	-3.4	1.1	-3.4	25.9	17.8	4.1	1.4	3.1	1.3	1.3
동국제약	KOSDAQ	건강관리	제약	669	-6.6	-4.6	-26.2	6.9	6.9	6.9	8.2	8.2	8.2	3.2	18.8	8.9	1.1	3.0	1.0	1.0
대한제약	KOSPI	운송	운송	552	6.9	-9.2	-22.0	6.8	6.8	6.8	-1.5	-1.5	-1.5	4.6	19.1	2.2	0.0	1.1	0.3	0.3
인터네트	KOSDAQ	건강관리	건강관리장비/서비스	401	-8.0	-1.4	-23.0	6.7	6.7	1.8	7.7	7.7	0.5	10.5	20.9	8.4	1.6	3.9	1.3	1.3
크래프톤	KOSPI	소프트웨어	게임소프트웨어	9939	27.1	29.7	16.9	6.7	0.0	7.2	6.0	-0.1	6.3	15.7	22.3	11.8	1.5	4.9	1.1	1.1
SK	KOSPI	상사지본재	복합기업	11763	7.1	-9.5	-22.3	6.6	6.6	0.3	1.5	1.5	12.2	17.6	25.2	2.7	0.4	1.1	0.3	0.3
동양생명	KOSPI	보험	보험	767	6.6	4.4	-8.4	6.0	8.2	6.0	6.0	8.2	6.0	8.8	10.8	1.6	0.2	0.5	0.1	0.1
GS리테일	KOSPI	소매(유통)	백화점	2618	2.1	-11.3	-24.0	6.0	0.0	6.0	3.6	-1.5	3.6	12.1	20.5	7.7	0.6	1.6	0.5	0.5

자료: Quant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1. 코스피, 코스닥 중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2개 이상 있는 종목 대상

주2. 잠정실적 발표 이후 2024년 영업이익 추정치 상승률이 높은 순으로 내림차순

주3. 주당순이익은 YTD 기준으로 벤치마크 대비 상승폭이 작은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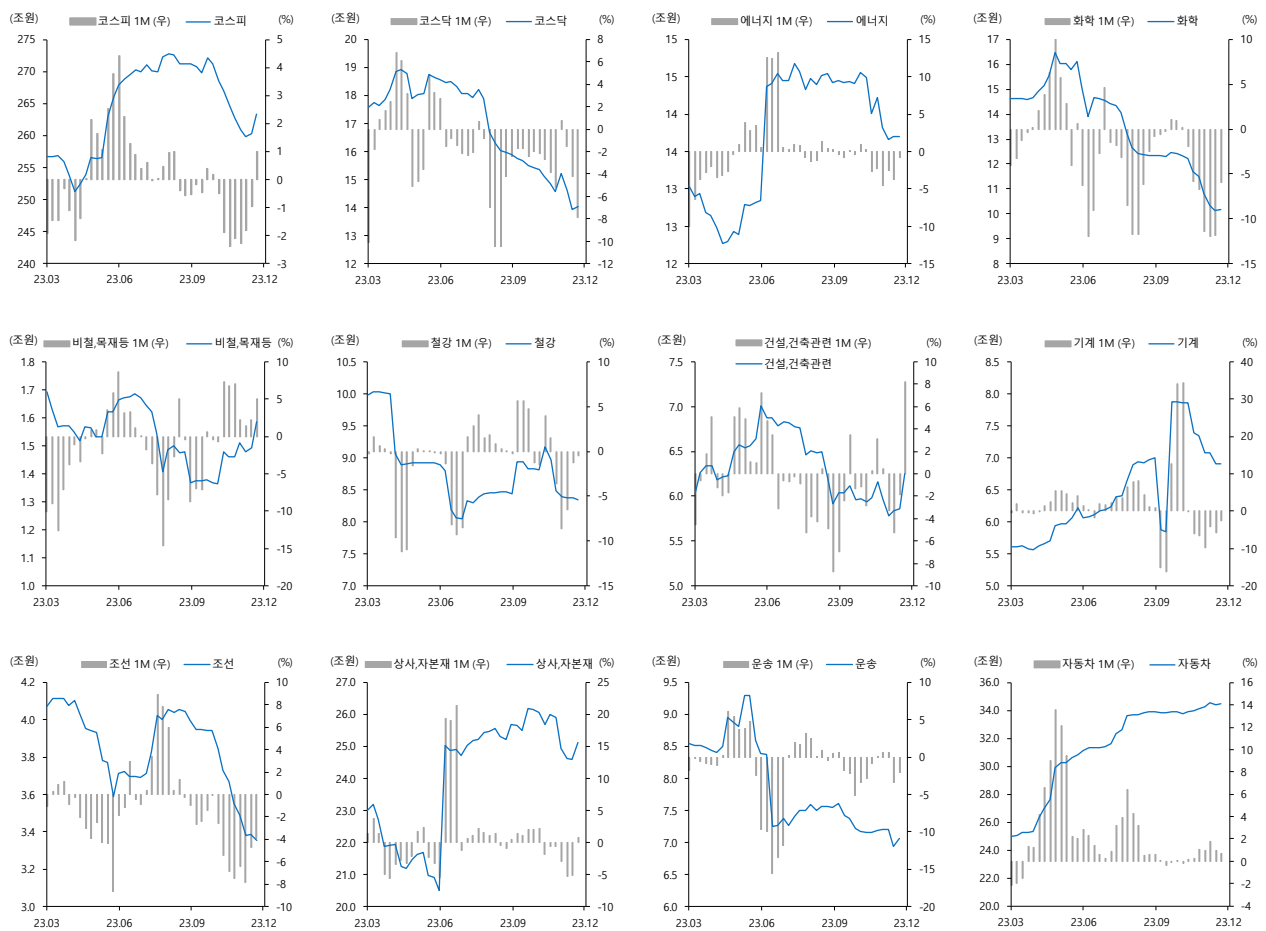
주4. 벤치마크 대비 상승률: 개별종목 YTD 수익률 - 벤치마크 YTD 수익률로 계산

Appendix

섹터별 2024E 영업이익 월간 변화율 동향

- 코스피 지수 2024년 영업이익 전월 262.8조 → 263.4조 (+6,457억원, +0.2%) 상향
- 코스닥 지수 2024년 영업이익 전월 14.5조 → 14조 (-537억원, -3.7%) 하향
- 섹터별 변화율 상위: 유틸리티(+23.5%), 필수소비재(+14.2%), 비철·목재(+8.7%), 건강관리(+6.4%), 건설·건축관련(+4.9%)
- 섹터별 변화율 하위: 화학(-11.7%), IT하드웨어(-6.4%), 호텔·레저(-6.0%), 소매·유통(-5.9%), 기계(-5.9%)

2024E 영업이익 전망치 및 1M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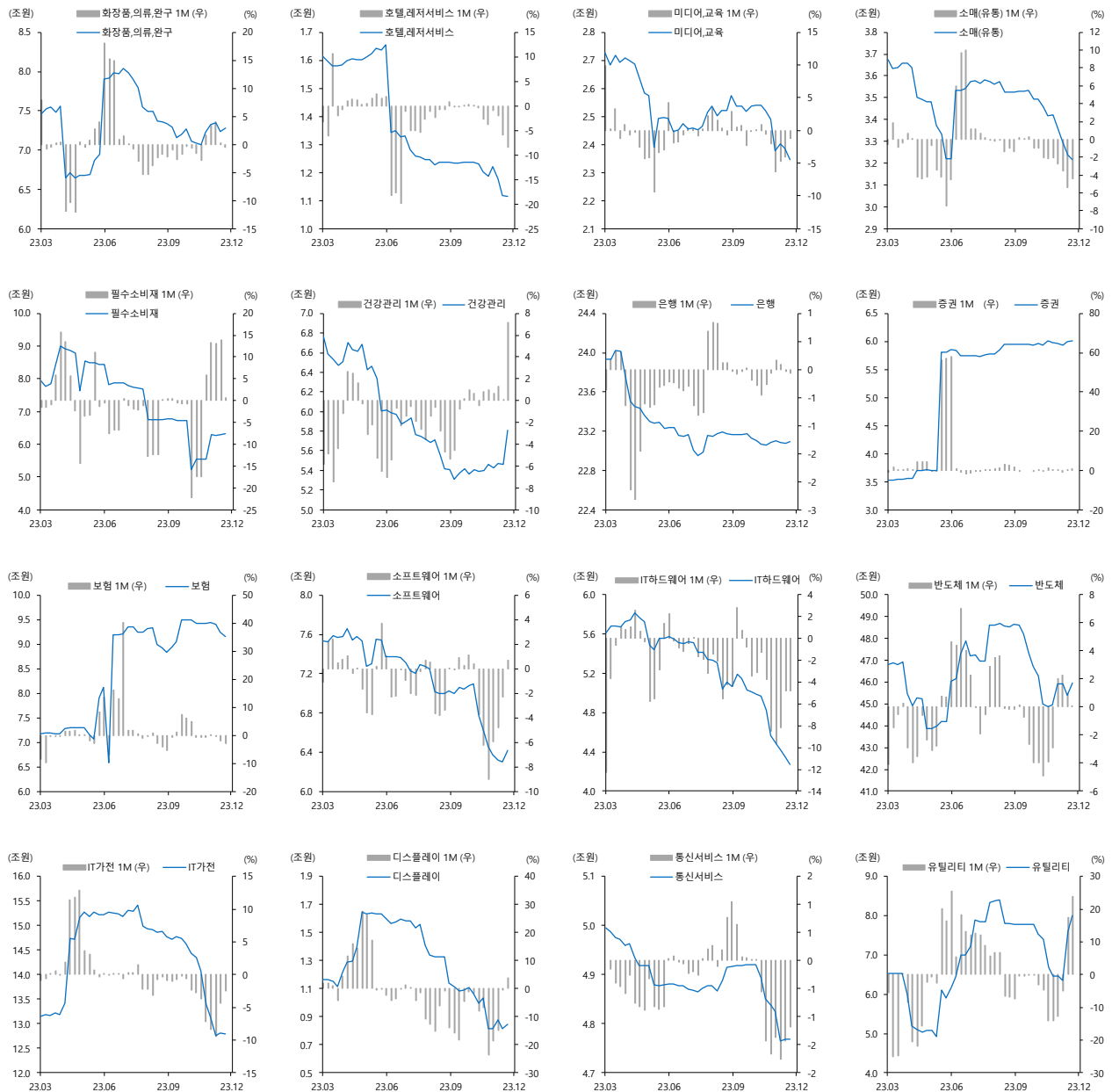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 1. 은행, 증권, 보험은 2024E 순이익 기준

주 2. 파란색 실선은 영업이익(순이익) 전망치, 회색 히스토그램은 월간 상승률

2024E 영업이익의 전망치 및 1M 상승률



자료: Quantivers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 1. 은행, 증권, 보험은 2024E 순이익 기준

주 2. 파란색 실선은 영업이익(순이익)의 전망치, 회색 히스토그램은 월간 상승률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신희철)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